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고 애국돌공장과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전의 건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 꾸린 병영과 살림집, 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방어대의 요새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병실과 세목장, 식당 등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영이 고향집보다 더 멋있고 모든 조건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 심초소군인들이 좋아하고 물에서 생활하는 군인들도 이곳을 부러워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치사상교양 거점인 교양실도 군인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잘 꾸렸으며 일식으로 갖추어진 비품들도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가족들이 생활하는 살림집들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가족별로 그들이 살게 될 새 살림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

에 오르시어 연평도서방어부대의 대상물들과 최근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와 화력진지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방어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목에 《만세!》를 부르는 심초소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똑같이 새로 꾸린 무도영웅방어대의 병영과 살림집, 진지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요새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돌아볼수록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건설자들이 최고사령관이 비준해준 설계대로 건설을 질적으로 정말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도유치원과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위고급중학교 무도분교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와 화력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무도영웅방어

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있는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병영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실, 세목장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군인들이 새로 꾸린 병영을 고향집보다 더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하시면서 월내도방어대의 병영을 그곳보다 더 잘 꾸려주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살림집구역을 돌아보시였다.

월내원에 들리시어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들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잘 지었다고, 시공도 깨끗하게 하고 마감자재도 좋은것으로 썼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유치원과 학교를 돌아보시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더 잘 꾸려주라고 이르시였고 살림집구획이 두드러지게 울타리를 보기 좋으면서도

특색있게 세워주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최근적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료해하시였으며 화력진지들도 돌아보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경상적인 전투동태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월내도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심초소의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애국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석재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시기에 애국돌공장에서는 각종 고급석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선군시대 대기념비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가공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돌가공실태와 설비들의 가동정형, 기술적특성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구내에 있는 애국돌전시장도 돌아보시였다.

애국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 돌로써 이바지하고 돌로써 당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선 과업들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애국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구내에 모셔진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포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업소에서 방파제에 수문을 내고 서해의 밀물과 썰물차이를 리용하여 자연순환식방법으로 바다물을 양어못물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철갑상어 등을 길러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업소의 야외 양어못에서 양식한 해삼을 보여주시였다.

우리 식의 해삼양식방법을 연구완성한 결과 다른 나라들보다 생산주기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신 후 사업소의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양어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데니스 로드

맨이 좋은 계절에 뱃으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하는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시고 그가 아무때든 찾아와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는 넓은 도량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친분관계를 가졌기에 조

신을 또다시 방문하는 행운을 지닐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가지 형태의 체육 및 문화교류에 적극 이바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동지에 대한 최대

의 존경심을 담아 성의껏 마련해온 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과 함께 4. 25탑과 압록강탑사이의 룡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만찬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기쁨속에 우리 겨레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지금 온 민족은 한평생 공화국의 자주와 존엄, 승리와 륜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대원수님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삼천리에 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역사의 신념으로 충만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주체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자주적 존엄과 위상을 떨치며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65년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사설

공화국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공화국의 승리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선군으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렸을것이다. 자주적존엄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해방후 튼튼한 군사적태도를 다지신후 공화국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군사사를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해방된지 5년,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던 청소년 공화국이 제국주의 괴수이며 전쟁의 원흉인 미국이 15개 추종국가군대와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조선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위에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단단한 껍데기를 짓부시며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공화국이 남들은 몇십년이 걸려도 이룩하지 못하였던 사회주의공업화도 단 14년만에 완성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태를 확고히 세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의강국으로, 세계가 우리르는데 주체의 나라로 될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변불후의 로고와 애국헌신이 있었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애국위업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경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 선군정치에 의해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지난 세기초 렬강들의 횡포와 간섭에 놀리어 뺨대받던 우리나라는 드높은 존엄과 기상을 온누리에 떨치게 되었다. 공화국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되며 무적의 백두산강군과 강력한 군사역력을 가진 군사국가로 전변되었으며 국제무대에 서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당당히 할 말을 다하는 나라로 되었다. 민족의 단합과 화해, 통일을 공화국이 남들은 몇십년이 걸려도 이룩하지 못하였던 사회주의공업화도 단 14년만에 완성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태를 확고히 세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선군을 확고히 앞세워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집요한 고립압박과 봉쇄를 짓부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이 땅은 사회주의본래가 곳곳이 살아있는 인민의 행복과 삶의 요람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태도가 비할바없이 굳건해지고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것은 자주를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세상에선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창건된 첫날부터 절세위인들의 경도밑에 자주적태를 굳건히 세우고 자기의 길을 따라 승리와 번영의 년륜을 새겨온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건하고 빛내여오신 공화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시는것은 우리 겨레의 마땅한 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오늘 공화국의 최고수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

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끝까지 받들어 공화국을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천하제일강국으로 세상에 떨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적의 의지이고 신념이다. 지금 공화국은 크나큰 신심과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오 확신있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군사적위력과 그이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애국적열정의 분출로 온 나라 도처에서 세기를 놀래우는 비약과 번영의 기쁨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참으로 반만년 우리 민족의 력사에 오를처럼 나라의 국력이 강국의 높이에 이르고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만방에 떨쳐진것은 일찌기 없었다. 온 겨레는 건국의 어버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또 한분의 천출위인

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선택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밝은 래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다.

조선민족의 피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서 살건 이 땅위에 국력이 강하고 인민의 부귀영화가 꽃피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데 조선민족의 살길이 있고 존엄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날이 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지나온 65년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앞으로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며 우리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되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길이길이 복락을 누리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무궁번영할 것이다

부강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

지상락원에서 살아보는 것은 인류가 바라는 최대의 꿈이고 이상이다.

장구한 력사의 흐름속에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오늘 공화국에 현실로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어머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신 조국과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 나라,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표명하신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가나 지도자가 많았지만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눈보라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폭양이 내리쬐이는 무더위속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애국애민의 헌신의 자욱을 남긴 령도자는 없었다. 주말이나 월말휴식을 위해 국가수반들이 별장을 찾고 퍼시지를 찾는것도 레상사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라고 하시며 레넌에 보기도 드문 이상기후조건으로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올해에도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

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가꾸어가시는 그의 발자취에 《마식령속도》창조와 같은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 공화국은 빠른 속도로 비약하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걸음이 떠지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떠지게 된다고, 날씨가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길위에 계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모습

으로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은 지금 공화국에서는 그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로 수많은 기적과 사변들이 려이어 일어나고있다.

60여년전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보려고 침략의 불을 질렀던 오만무례한 미국의 패망상과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전승의 력사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새로 일떠서 반공화국세력과의 대결에서 려전련승하는 이 나라 인민의 긍지감을 더욱 높여주고있는 것이다.

또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교조가 새차게 벌어지고 현대적인 공민들과 유원지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있다.

불과 한세기전만 하여도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탁월한 령도자를 대대로 모시어 수령님, 장군님이 차넘치고 있으며 공화국은 인민의 무릉도원, 천하제일강국으로 전변되어가고있는 것이다.

자주, 자립, 자위로 위력 떨치는 강대한 조국을 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세계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현실에 비견 재일

지금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들이 도처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온 나라 인민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그의 설계도는 웅대하다. 식의 주분야는 물론 교육과 의로봉사, 체육 활동과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최고수준의 문명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참모습이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 《선군의 기지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비롯하여 강령적인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굳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정서화를 주시어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발전 풍부화 하시고 백년대계의 새 진군

길위에 명확한 리정표를 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천재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그 승리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그의 현명한 령도로 조국땅에는 전례없는 기적과 변혁이 이룩되고있다. 나라의 전반사업이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확고히 전환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교조건설에 개건반비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과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포괄생산기지들이 온을 내고있다. 그런가하면 경제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 발전된 교육강국, 사회주의문명국에 나아가는 공화국의 모습이 다시금 온 세상에 파시되었다. 지난해 현 대적인 창조전거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통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이 새롭게 꾸려지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를 비롯한 의료, 체육봉사기지가 갖추어져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받아안고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속도를 종전의 두배로 높였으며 세포등관개간과 미림삼마구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정서화를 주시어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발전 풍부화 하시고 백년대계의 새 진군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받아안고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속도를 종전의 두배로 높였으며 세포등관개간과 미림삼마구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정서화를 주시어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발전 풍부화 하시고 백년대계의 새 진군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받아안고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속도를 종전의 두배로 높였으며 세포등관개간과 미림삼마구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정서화를 주시어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발전 풍부화 하시고 백년대계의 새 진군

람이 일어나고있다. 체육인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워하며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람송색공화국을 휘날림으로써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워가는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심심과 고무로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류레없는 전변이 일어나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령도자의 구상이 하나하나 눈앞의 현실로 꽃피고있는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인것이다.

최근 로씨야신문 《빠트리오트》는 《세계대중보도수단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늘날 어디에 계시는가를 힘껏 집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신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부리중진령역을 확대하는데로 이끌고계신다. 이것은 전세계의 백두산 위인들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로선이다.》라고 전하었다.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아올 원대한 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애국애민들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머지않아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강국건설의 진로

인민대중의 삶의 요람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의 터전인 공화국이 65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었다. 오늘 공화국이 자주와 존엄, 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비결은 바로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전진해온데 있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며 부강번영의 원동력이다. 아무리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발전된 경제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자주정신이 결여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자주정신이 강한 나라와 민족만이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근본리익을 견결히 고수하고 자기 식의 발전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떠들었던 진후의 재더미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고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의 끊임없는 강압속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여 왔으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점령한 사람

들이 바로 자주정신을 신념으로 체질화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이다.

지난날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침략자들에게 국권을 강탈당하는 쓰라린 비극을 당했던 조선이 오늘날은 세계가 바라보는 자주의 나라로 존엄을 떨치고있다. 정치에서 자주적대가 강하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허용치 않으며 그 무엇보다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마음먹은대로, 자기의 배짱대로 내미는 공화국의 강대한 모습, 그것은 온 나라를 자주의 성새로 억척같이 다져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격동적인 현실인것이다.

선군은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평화의 담보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강한 국력에 의해 담보되며 국력은 총애에서 나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선군사상을 제시하고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높이 올리시였으며 정의의 총대로 조국해방전쟁도 승리에도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강군으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공화국이 선군의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는 이미 전쟁이 열번도 터졌을것이며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는 백승의 정치로, 불패의 강국을 건설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공인되고있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생명이고 생활이다.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영예도, 참다운 행복과 미래도 사회주의에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지난 기간 세계를 휩쓴 반사회주의역풍에도 흔들림없이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와 사생결단의 대결전에서 승리할수 있는것은 사회주의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세상에 공화국과 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며 인민들에

게 값높은 삶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헛눈을 팔지 않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고있다.

공화국의 65년력사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만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참다운 진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헌신이 어려웠는 공화국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며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듯이 오늘도 래일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김영찬

얼마전 나는 TV화면을 통해 세계예술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설경선수의 모습을 보았다.

람송색공화국기가 서서히 오르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1등의 시상대에 올라 솟구치는 격정에 어깨를 들먹이는 단발머리처녀.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국가! 어찌하여 그

는 흐르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목매어 이 노래를 부르는것일까.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상이나 영예를 상징하는 노래, 국가가 있다. 하지만 나라없던 지난 세월엔 국제무대에서 1등을 하고도 당당히 떠돌 국기도 목청껏 부를 국기도 없었던 조선민족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공화국을 세워주시기 때부터 비로소 우리 인민은 진정한 조

국을 가진 존엄로운 인민으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세 조국건설에 떨쳐나설수 있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애국가의 선율을 가슴깊이 새기고 가릴척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전후복구건설에 이어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은 남들이 부

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선군대령 김정일장군님을 다시 뵈옵는 것만 같았다.

진정 애국가의 선율마다에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 오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에서 1등의 시상대에 오른 처녀도 목매어 애국가를 부르는것이리라.

그리고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겠는가. 대를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행복,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온 나라 인민의 불타는 맹세에 떠받들려 애국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국의 푸른 하늘에 더 높이, 더 장엄하게 울려 퍼질것이다.

박철남





장시 너 늘 이 휘 날 리 라 공 화 국 기 여

김 영 너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위원장)

호르는 세월
그 어느 하루 한순간도
그리움 없이 산적 있으랴만
오늘은 더더욱 간절합니다
창건 6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
그리움은 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조국
불러만봐도 눈시를 적시지는 그 이름
목메어 부르며 띄우는 공화국기발
하늘가에 나뭇기는 저 기복은
그리운 조국에
나래쳐 가고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정깊은 옷자락처럼
우리 몸 따듯이 감싸안아주는 기발
저 기복의 퍼덕임소리는
이역의 자식들 찾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릅니까

사람들 흔히 말하곤 합니다
집을 떠나 사는 자식은
외롭고 쓸쓸한것이라고
고국을 떠나 이역에 사는 사람들
만큼
불행하고 고독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조국과 떨어져어도
이 기발 있어 외롭지 않았고
비록 해외에 살아도
이 기발 있어 이 몸은
친정집 조국의 품에 안겨살았거니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이 존엄
조국의 아들딸로 사는 궁지
그 땀땀하고 무한한 자부름 준 기발
더없이 귀중한 내 나라 기발

생각은 깊어집니다
제 나라 기발이 없던 수난의 세월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구슬픈 인생을 이역땅에
락엽처럼 굴러야 했던
우리 동포들 아니었습니까

떡을 국기조차 없는
슬픔과 치욕 가시려
의병의 기치도 들어보았고
3.1의 기발도 추켜들었던
그 기발들도 씻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라없는 쓰라린 슬픔과 치욕을

항일혈전의 눈보라우에
빨찌산 붉은기 휘날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는 주석님
해방된 땅에 민족이 안겨살
진정한 조국 공화국을 세우셨거니

한생을 바쳐 내 나라 빛내이시고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펼쳐주시는
주석님
조국이 강하고 위대해
주체조국의 해외공민
그 땀땀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삽니다

눈가에 어려웁니다
공민활동 벌리는 어머니따라
연변과 심양 왕청과 화룡...
드넓은 동북땅 안가본 곳 없던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이

동포들 가슴에 조국을 새겨주고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소라
그리도 많이 애쓰신 어머니
이 딸의 가슴에 새겨준 조국은
김일성주석님 모습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석님 뵈고싶은 마음
꽃으로 피워안고 늘 찾곤 하는
길림육문중학교
주석님 동상 처음으로 우러르던
그날을

나라 찾을 주석님의 애국의 큰 뜻
어린
그곳에서 나는 조국을 알았습니다
열혈의 청년장군 그 모습은
이 가슴에 새겨진 조국의 모습

뵈워도 또 뵈고싶어 때없이 찾고
힘들때면 저도 모르게 찾는 주석님
입니다
주석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에
오늘도 애국의 자욱 나는 수놓습니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동포들 많고많아도
우리처럼 주석님 동상 모시고
항일의 전통 빛나는 땅에서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을 안고사는
그런 동포들은 없거니

이 궁지와 영광으로 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발
바라볼수록 힘이 솟고
조선사람
그 당당한 배심을 안겨주는 기발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나뭇길 하늘 있다고 기발이 날리랴
주석님 한평생에 받들려
60여년 휘날려온 공화국기발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궁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며 굳센 힘입니다

주석님 성스런 한생이 어려웠고
주석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온
우리의 행복한 세월이 다 담겨진
기발
필력이는 저 기록에
생각깊은 마음 없어보나니

좋은 날 좋은 때만 날렸습니까
공화국이 걸어온 그 세월엔
준엄한 폭풍은 얼마나 몰아쳐왔고
시련의 불기름은 또 얼마나 불어쳐
왔습니까

지구의 도처에서 치솟던
제국주의 침략의 불길
그 불길에 종이장처럼 국기가 불태워
지던
비참한 나라들은 그 얼마
힘이 약해 국토를 강탈당해야만 했던
수난많은 나라들은 또 얼마

정든 고향 조국땅을 뒤에 두고
이민으로 난민으로
남의 땅에 휘부러지던 사람들

구원해줄 운명의 구세주를
피라게 찾고 부를 때

장군님 계시어 그 누구도
내 조국엔 불을 지를수 없었습니다
이민으로 난민으로
조국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조국을 찾는 우리 동포들의 길이
나날이 더 넓어만졌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지켜준 선군은
해외에 흩어져사는
우리 동포들도 다 지켜준 선군
그 선군은 장엄한 백두산처럼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운명의 기둥이었습니다

문화교양실의 책상우에서만
우리 선군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화관의 불빛은 무대우에서만
우리 선군의 노래 배우지 못했습니다

포악한 제국주의 횡포속에서
조국인민과 함께 이역의 우리들을
살붙이로 품어 지켜주시는 장군님 사랑
가장 어렵고 시련했던 그 나날에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선군의 강대함 느꼈습니다

9월의 하늘가에
새차게 날리는 공화국기의 퍼덕임
소리

이는 장군님 지켜주시는 조국과
하나로 숨줄을 잇고사는
우리 심장의 박동소리

하기에 우리 동포들
조국과 자기 운명
돌로 갈라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목메어 조국을 불렀습니다

조국의 강성번영
통일위한 애국의 길을 걸으며
한생을 바친 해외의 동포들
값높이 내세워
영생의 언덕우에 빛내준 조국

우리 곁을 떠나갔어도
동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못 잊을 사람들
조국이 알고 기억해주는
소중한 그 이름들

평양의 해외동포애국자요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불러봅니다
최영희
정각현
리철재
...

생전엔 조국위해 많은 일 했다고
애국자로 불러주고
사후엔 높은 국가수훈자로
영생의 모습으로
별처럼 생을 빛내준 조국

품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을
더 각별히 위해주는 어머니처럼
복에서도 복을 풀라 준 조국의 사랑
세상을 떠났어도

한품에 안고 놓지 않는 조국의 사랑
어머니 품에 안긴듯
정든 집에 안겨있는듯
돌사진속에서 웃는 그들의 모습들
살아도 정에 살고 죽어도 정에 사는
그 품이 바로 귀중한 내 조국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것임을
사무치게 깨우쳐주는
한 동포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내 여기에 적어놓고싶거니

여러해전 어느날
눈을 감는 운명의 시각
그가 조용히 내놓은것은
붉은 비단천주머니

그속에 소중히 감싸있은것은
연남색빛갈의 중서
중서의 표지엔 뚜렷한 글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
공민증》

그 공민증의 갈피엔
한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
길지 않은 마지막 부탁이
또박또박 적혀있는

- 나는 50여년 동안 이 공민증을
품고
장군님과 조국앞에
땀땀이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니희들에도 장군님과 조국을
한시도 잊지 말고
참담게 애국자로 살아야 한다

아, 해외공민증 그것은
뼈저리게 느낀 조국의 소중함
그 소중함을 한생토록 저버리지 않은
해외동포들의 고귀한 삶의 증표

한장의 편지 그것은
조국을 잊고사는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준절히 깨우쳐준 삶의 교과서

천금만큼을 들여도 깨칠수 없고
그 누가 배워주어 터득할수 없는
조국의 귀중함
조국의 공민 조국의 아들딸
오직 이 하나 삶의 본령을
심장에 지니고 사는 우리 해외동포들

못 살아 조국을 떠나
조국이 없던 순간도 못 살아
마음의 하늘에서 언제 한번 내린적
없는
공화국기는
우리의 요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대원수님들 한평생을 바쳐
조국의 하늘가에 휘날려주시어
그분들의 한생과도 같은 공화국기
나는 기록에서 봅니다
이 기발 만대에 휘날려주시길
거룩하신 원수님의 손길을
전승60돐 경사의 나날에

원수님 우리 동포들 안아
기념사진 찍어주시길 때
하늘가에 나뭇길 공화국기발
전승철 축하공연 무대에
애국가의 선율속에 날리던 기발

그 기발은
주석님 위업 만대에 이어가실
원수님 그 의지로 날리신 기발입
니다
장군님 가고가신 선군의 길
번함없이 이어가실 신념으로
원수님 날려주시는 기발입니다

원수님 눈물로 우러르며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주석님 전승의 업적
장군님 선군의 업적
공화국기발과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것을

불패의 일심단결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고
원수님 계시어 내 조국은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릴수 없는
나라
필승의 나라로 위용떨치리라는것을

이역에 살아도 원수님 모습
TV로 매일 보아 잘 압니다
그 어떤 퇴색벽력에도 끄덕않으시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
령장의 거룩한 기상과 배짱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잡니다

조국에 올 때마다 보게 되는
하나같이 기쁨에 넘쳐있는
조국의 인민들 행복한 모습들에서
나는 케부깊이 느낍니다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의 위인상을

하기에 내 사는 이국땅
동포들 사는 그 모든 나라들에서
한결같이 터치는 갑탄의 칭송
원수님을 우러러 웨치는
다함없는 숭배와 흠모의 환호

만나는 벗들마다
치마를 맞대고 사는 이웃들
그 누구나 원수님과 한식술로 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부러워합니다

그이 아닌 그 누가
이처럼 우리 공화국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습니까
그이 아닌 그 누가
이역땅 동포들의 삶과 운명
그처럼 빛내줄수 있었습니까

몸담고 사는 곳에 정이든다 했지만
마음을 두고 사는 조국에
우리의 정이 넘쳐흐릅니다
주석님 장군님과 꼭 같으신
원수님 품에 우리 운명 맡겼습니다

잊을수 없습니다
뜻깊은 청년절정축대표로
조국에 온 이 몸을 품에 안아
원수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지난해의 그 8월을

나라위해 큰일을 한 청년대표들
만나주셔야 할 사람들 많으시련만
신참으로 몸가까이 불러주시길 때
나는 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재중동포청년들의 충정의
맹세를

-만약 조국땅에 전쟁의 불기름 밀려
온다면
조국의 청년들과 같이
우리 해외청년들 전선에 달려와
목숨바쳐 조국을 수호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 미소속에 들어주시며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원수님
어찌 저만이 안겼겠습니까
우리 이역의 동포들이 다 안겼습니다
인자하고 자애로운 그 품에

울며 웃으며 그날에 찍은 사진
가보로 정히 모신 그 사진
원수님 뵈고싶어
그날의 영광을 듣고싶어
날마다 동포들 찾아옵니다

눈물에 젖어
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눈물에 젖어 동포들 감격을 터칩니다
원수님 받들어 애국의 길만을 걸을
가슴속 충정을 터놓습니다

그 불타는 충정을 담아
이국땅 하늘가에 나뭇기는 공화국
기발
우리 해외동포들
원수님 떠나 순간도 못 살듯이
이 기발 떠나
결코 인생의 다른 길 찾지 않으렵
니다

나라마다 국기는 있어도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광으로 빛나고 승리로 자랑높은
그런 기발은 공화국기발
내 나라 기발이 제일입니다

믿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는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기발 때도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 조국을 믿고
이 기발에 의지하여 굳건히 살렵니다

동포청년들 하나로 뭉쳐
애국의 길 아닌 헛길을 걸지 않으렵
니다
동포청년들 그 열혈의 피로
공화국기 붉은 기록을 물들이며
조국이 아는 청춘으로 살렵니다

아, 9월의 하늘가에 휘날려
세월의 끝까지 나뭇길 기발이어
공화국기는 우리 원수님의 품
죽어도 못 버릴 우리의 정든 집
언제나 놓지않을 애국의 기치

위대한 65년력사와 더불어
더욱 찬란할 조국의 세월과 더불어
더 높이 날리라 공화국기여
해외동포 우리 모두 심장으로 안고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기발이어

통일애국으로 빛나는 로정

공화국의 성스러운 65년 력사는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인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한걸음 따라 걸어온 통일애국으로 빛나는 로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쏘비랑군의 동시철거작전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북남통선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제안, 폭넓은 협상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북남직접사회화담제안,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단계적인 군축제안, 경제회담, 체육회담, 학생회담제안 등 수많은 통일방안과 북남회담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힘차게 벌려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셨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

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평화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으로써 민족주체적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실천적조치로서 공화국은 1987년에 10만명의 병력을 축소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평화적건설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공화국은 지난 65년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비록 과거에

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뒤우치고 조국통일사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민족의 모든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를 바로 공화국의 광복정치이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적인 광복정치가 공감하여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희진, 최홍희 등 사상과 정견이 다른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이 통일애국의 길을 걸었다.

애국력량의 단합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꾸준한 노력으로 하여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비상이 강화되고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는 크게 고조되었다.

과를 나눈 동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화국은 지난 기간 남북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물질상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 특히 1984년 8월말~9월초에 내린 폭우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리재민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물자를 보내줌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00년 6월 애국애족의 대응단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날날 축성원들을 따듯이 맞추시며 천리해안의 예지,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민족이 나아가길,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7년 10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하시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통일의 환희가 삼천리강토에 넘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밀어 통일애국의 길에 힘입어 민족의 자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사면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수 《정권》의 등장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을 때에도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사색하였다.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북남관계발전과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에 의하여 긴장과 대결국면이 완화되고 대화와 화해의 국면이 마련되어가고있다.

가장 투철한 통일애국의 지를 지니신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하시던 언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온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잠정중단되었던 개성공업지구를 정상가동의 주로에 들어서게 하고 휴먼지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북남관계문제들을 대법하게 풀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은 온 겨레의 찬양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 겨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살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가장 투철한 통일애국의 지를 지니신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하시던 언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온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며 확고하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기어올라 통일과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북남공동선언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가자면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어느 일방에만 편을 주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리익을 다같이 도모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진민족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의 표대이다.

돌이켜보면 반세기이상 불신과 대결의 랭기만이 흐르던 북남관계에 파렬구해를 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열풍이 삼천리강토를 진감하게 된것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6.15가 열어준 길을 오가며 정계, 사회계, 학계를 비롯한 북과 남의 광범한 계층들사이의 배왕과 다방면적

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다. 백두산과 평양, 금강산에서, 제주도과 서울, 부산에서 6.15와 8.15를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의 지를 만찬함에 파시하였다.

통일의 마차소리 힘있게 울려가는 궁지를 안고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뜨겁게 열싸움을 때 농민들은 통일된 새땅에서 갈갈이할 꿈을 농악무에 담기도 하였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갈 청년학생들과 교민, 학자, 언론인,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들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북에서 《미녀운동단》이 왔다고, 남에서 동포들이 《아리랑》관람을 왔다고 서로가 반갑게 맞이하고 환호를 보내며 경기장이 떠나갈듯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이라고 목이 터지게 웨칠 때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민족애만이 차고넘쳤다.

정녕 그것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땅도 하나이고, 피출과 언어, 문화도 하나인 우리 겨레만이 온녓으로 걸갈수 있는 감격과 희열이었다.

6.15는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안겨준 삶의 빛이다.

북과 남의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고있던 순간의 불찰이 예측할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수 있는 군사적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금강산과 개성에서 가시철풂조망과 지뢰가 걸리고 철도도

로가 련결되어 남북동포들이 줄지어 찾아와 관광도 하고 기업도 운영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면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현실에 대해 세계인들은 《조선의 통일은 더이상 념원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오는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평하였다.

6.15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고 통일이며 7천만 우리 겨레의 생명이다. 지금은 겨레는 각계각층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화해와 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가던 그때를 감동깊게 추억하면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있다. 최근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이 따로없이 선수들과 관중들이 하나로 어울린 화합의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는 길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고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다.

북남선언들을 대하는 실천행동에서 통일과 분렬, 평화와 전쟁, 애국과 매국이 갈라진다.

조선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되야할것이다.

리련숙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지난날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65년 력사와 더불어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성지로 빛을 뿌리고있다.

평양은 민족의 넋이 살아있고 자주와 존엄이 높으며 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이 있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은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력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흘러왔다.

그것은 평양에서 민족단합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된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사족을 받은 분렬주의자들의 《단선단정》조작음모로 하여 나라가 영원히 둘로 갈라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시기인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각인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독립을 위한 결정적대책을 논의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뜻깊은 민족대회합으로

자주통일의 성지

하여 리명대결의 꽃이 길어진 겨레의 가슴마다에 단합의 넋이 깃들게 되었다.

평양은 온 겨레에게 통일애국의 넋을 심어준 회장의 도시이다.

평양의 통일거리입구에 높이 솟은 조국통일3대원칙기념탑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통일애국의 자각을 새겨주고 열정을 북돋아주며 통일애로 가는 곧바른 길을 가리켜준다.

돌이켜보면 5.16군사파쇼 《정권》이 들어앉은 서울에서 《승공통일》과 《선건설, 후통일》론이 등장되고 《지금에는 어떤 형태의 남북교류도 있을수 없다》는 반통일말발이 튀어나오던 그때 평양에서는 민족의 혈맥에 단합과 통일애국의 더운 피를 뿜어주며 폭넓은 북남협상방안이 울려나왔고 마침내 조국통일3대원칙이 태어났다.

평양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둘러싸고 민족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평양에

의 위인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쉬가 더욱 세차게 울리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시시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북남사이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심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평양의 통성기와 더불어 기어올라 세워질것이며 평화번영의 새 력사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줄기차게 펼쳐질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최근 북과 남사이에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와 휴먼지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향하고 그것이 주변정세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는 오늘날 북과 남의 정치적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된다.

북과 남은 이미 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반세기이상의 오랜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시킨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사면들과 기적들이 이룩되었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지난 5년간 남조선 전 《정권》의 동족대결정책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대결과 불신의 단계로 되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군사적충돌사건이 발생

하는 등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북과 남이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모두에게 불어넣고있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북남대결이 지속되면 그것은 기필코 전쟁으로 이어지기마련이며 온 민족이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겨

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는 저들의 침략적리익으로부터 조선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내부에 불신을 대결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민족분렬을 영구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목표를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손을 잡고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자면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결정적으로 끝장내야 한다.

외세에 의해 근 70년동안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싸워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비록 북과 남에는 수십년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해오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동족끼리 대결해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

앙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민족보다 우선시될수 없으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장으로 될수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그에 의해 마련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얼마든지 손잡고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시켜주었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세계 자주통일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통일의 대강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길에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도 있고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도 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만 북남관계가 발전할수 있다.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한 북남공동선언들을 떠나서 제대로 된 북남관계를 수립할수 없다.

북과 남이 지난날의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한다면 통일은 그만쯤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해내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저지파란식력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남북이 힘모아 잘사는 나라 만들자》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과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한반도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련석회의》는 서울광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실현 시민문화제》를 열고 《평화협정 맺어 남북이 힘모아 잘사는 나라 만들자》,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한국전보전대》와 《72시간 집중행동》은 미국대사관앞에서 《북미 대화 평화협정 체결 거부하는 미국구대회》를 열고 《정전 60년은 우리 민족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분단과 비극의 60년》이였다고 하면서 《2013년은 분단과 비극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평화



남조선인민들 6.15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하며 시위

본사기자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제 나이가 깊어질수록 나라의 부강번영에 보탬은 주지 못하고 은덕만 입어늘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조국인 우리 공화국이 예순다섯번째 년륜을 새기는 뜻깊은 날은 그냥 지나보낼수 없어 로구의 심혼을 모야 붓을 들었습니다.

늙으면 추억에 산다지만 저는 조금한 마음에 삽니다. 복속에 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역의 하늘아래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온 생애를 관통하고있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수처럼 밀려오는 다난한 인생을 더듬으며 붓을 들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만 마음속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1

조국이란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나서자란 곳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하는것을저는 가나긴 세월 뼈속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참다운 조국을 찾아 인생을 방황하여왔습니다.

인생초엽에는 독립군명령객인 아버지의 운명과 잇닿아있어 조국이 없는 설움을 체험하였고 중엽에는 운명을 맡길 품을 찾아 해마다 방명객의 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 세상을 거치며 근 백년인생을 사는 지금에 와서 저의 전반생을 돌아보면 천도교에서 말하는 《귀환》의 닷을 내릴 행복의 포구를 찾아 해마다 작은 쪽배와도 같았습니다.

저편이 아닌 단군의 후예로 련면히 이어온 한민족이 외세의 침탈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헤어져 받은 수도, 한강도가 들로 갈라져 당한 농토는 형언할수 없는것이었습니다. 이변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다시 보니 불우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만대의 교훈을 남긴 20세기 전반기가 더욱 생생히 밝혀왔습니다.

식민지정탈을 위한 령장들의 각축전이 격렬하던 때 지구상의 피난민은 3 000만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19세기말 언해주와 만주로부터 1903년에 미주에까지 확산되어 부랑살이를 한 조선사람은 수백만을 헤아렸습니다. 이 수자에 조국을 빼앗긴 망국민의 운명이 비껴있었습니다.

폭절없는 민족의 수난사와 더불어 꽃나시절을 덧없이 흘려보내고있던 저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때 누구나 이야기하던것처럼 눈만 감으면 삼삼히 어려오는 고향의 정든 산천이 아니었습니다. 이역에서 태어나 아직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섬, 단 한번이라도 훑아보면 원이 없을 섬조는 함이었습니다.

밧아볼 조국이 없는 망국노의 설움을 달래일수 없어 《봉선화》노래를 예달르게 부르고 또 부를 때 아버지(류동일)는 너무도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가정도 이국땅에 버려졌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역에서나마 힘을 키워야 한다고, 그 길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곱씹곤 하였습니니다.

당시 상해립정에서 활동하고있던 민족주의거두들속에서는 산업과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민족의 실력을 배양시키자는 목소리로 높았고 일제피수들에 대한 레로 독립의지를 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울려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

았던 시절이었지만 조선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분대들이 늘 돋보이곤 하였습니다.

부친들끼리 정해버린 혼약에 따라 청년 최덕신과 결혼을 하였지만 저 역시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서도 예국의 지조를 간직하고 항일전을 벌리는 그가 더없이 미더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이란 그 말에 있고서는 못살 땅이나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초월한 커다란 정치적인 미가 담겨있음을 깨닫게 한것은 조국해방과 더불어 흥난한 남조선에서의 굴곡많은 인생행로였습니다.

해방된 그해 10월 시력을 따라 서울에 발을 들여놓으며 받은 첫 인상은 서울이 미국사람세상이라는것이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미군정차들, 술에 취한 미군병정들이 정말 역겹기 지 않았었습니다. 일제총독부가 있던 건물에 드리워진 성조기를 보니 또다시 망국노의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민족의 리익을 실현해보려고 모지름했습니다. 저의 남에도 별로 다름바 없었지만 미국의 의사에 따라 국정전반이 파우지는 남조선사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계도를 질주하는 인생력정이란 더 큰 환멸과 모멸감만을 자아낼뿐이었습니다.

전쟁때 남편이 《국군》대표로 휴전담판회의장에도 앉아있었지만 사실 아무런 권도 결의권도 없었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명령하는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때는 의교수장이라고 세계를 좀다하게 활개쳤지만 어떤 문제가든지 미국의 동의를 얻을수 있었는가 하는데 귀착되는 속에 자의든 타의든 반역의 죄악만을 덧씌우는 매국형각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운명이 이르하였을진대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통치하에서 겪는 인민들의 참담한 생활이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끝내 어지러운 정치권과 결별하고 내 민족을 위한 종교활동에 몸을 담으려 했지만 그 청순한 꿈도 실현수 없었습니다. 친미시대 미국세력은 천도교의 예국예종의 리념을 거세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리용물로 만들어 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란암의 마수를 뻗었습니다. 천도교 교령으로 취임했던 남편이 터무니없는 루명을 쓰고 모해당하여 해외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미국의 조종밑에 남조선당국이 감행한 박해의 과파였던것입니다.

남조선은 운명을 의탁할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망국의 그 세월에 있고서는 못살 심장의 전부처럼 느껴지던 땅이 원한과 분노의 땅으로 가슴속에 양이 되게 덧겨져 중당에는 리별해야 하는 비극은 어디서 산생된것이었습니까.

민족의 존엄을 상실한대 근본원인이 있었습니다. 딛고설 땅이 있다고 존엄이 저절로 지켜지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존엄이 깎아지른 땅에 넓이 살아 높될수 없었고 사람들의 복락이 깎아지른다는 너무도 만무한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해외망명에도 길은 조국을 잃은 나그네의 고향길을 좇아온 조국이 없는 방랑아의 설움에 찬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렸다고 조국에 대한 련민의 정마저 사라지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저 처마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

볼수록 잊지 못할 옛 추억을 불러주며 눈물겹게 안겨오는 조국,

그 조국이 존엄이 차넘치고 세상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우뚝 솟아오를지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더우기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깊어질수록 피스러운 한생이 가슴미어지게 총화되고 눈을 감기 전에 속죄라도 해야겠다는 깨달음이 클수록 남편의 마음은 공화국으로 끝없이 향해졌습니다.

북남간의 첨예한 대결이 년대를 이어 지속되는 속에 생소하다고 느껴질만큼미지의 참사를 받으며 온 공화국이 고 반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이 어떻게 되어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었는가를 온넋으로 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말씀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여주시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계급성과 민족성,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계급성을 견지하면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게 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민족의 통성변영을 이룩해나가도록하신 여기에 공화국이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사회주의를 하시여도 민족을 위한 사회주의를 하시고 나라를 건설해도 어느 한계급, 계층만이 아닌 온 민족이 안겨 살수 있는 참다운 조국으로 건설해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어 사회주의위업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민족의 통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 위업으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셨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민족자존의 기상이 높워고 겨레의 운명이 지켜지는 삶의 요람입니다. 수난과 영양이 명암처럼 대조되는 민족사의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살아오면서 제가 온넋으로 절감한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겨레의 안녕도 국력이 강해야 빛나고 지켜진다는것입니다. 국력이 약하면 사대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궁극에 가서는 나라마저 잃게 된다것은 조선봉건왕조 말엽의 피눈물나는 망국사가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강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대포와 군함을 끌고 덤벼드는 외적들에게 창과 화살총으로 맞아야 했던 한 세기전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겨레의 안녕을 지켜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정말 돋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한평생 가꾸어오신 공화국에 《귀환》의 닷을 내리었습니다.

2

보급자리를 찾아가는 새처럼 인생을 찾아 헤매인 참다운 조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으니 해외망명생활의 하루하루가 더욱 진저리나고 고달프고 지냈었습니다.

그때저 저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한평생 가꾸어오신 공화국에 《귀환》의 닷을 내리었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인생의 닷을 내린지도 스물일곱해가 되었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태양의 품속에서 고목에 꽃을 피우며 신인간으로 환생한 나날인 동시에 공화국의 품이아말로 온 겨레가 운명을 의탁할 참다운 조국임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는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강화발전된 우리 공화국은 계급적인적,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동시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이 어떻게 되어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었는가를 온넋으로 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말씀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여주시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계급성과 민족성,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계급성을 견지하면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게 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민족의 통성변영을 이룩해나가도록하신 여기에 공화국이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사회주의를 하시여도 민족을 위한 사회주의를 하시고 나라를 건설해도 어느 한계급, 계층만이 아닌 온 민족이 안겨 살수 있는 참다운 조국으로 건설해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어 사회주의위업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민족의 통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 위업으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셨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민족자존의 기상이 높워고 겨레의 운명이 지켜지는 삶의 요람입니다.

수난과 영양이 명암처럼 대조되는 민족사의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살아오면서 제가 온넋으로 절감한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겨레의 안녕도 국력이 강해야 빛나고 지켜진다는것입니다. 국력이 약하면 사대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궁극에 가서는 나라마저 잃게 된다것은 조선봉건왕조 말엽의 피눈물나는 망국사가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강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대포와 군함을 끌고 덤벼드는 외적들에게 창과 화살총으로 맞아야 했던 한 세기전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겨레의 안녕을 지켜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정말 돋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한평생 가꾸어오신 공화국에 《귀환》의 닷을 내리었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인생의 닷을 내린지도 스물일곱해가 되었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태양의 품속에서 고목에 꽃을 피우며 신인간으로 환생한 나날인 동시에 공화국의 품이아말로 온 겨레가 운명을 의탁할 참다운 조국임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는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입니다》

여러 나라 신문, 방송, 잡지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 잡지가 특집하였다.

김포자신문 《크마에 아마파》 8월 29일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6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이 되는 날이다.

지난 65년간 공화국은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이 되는 날이다.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은 철두철미히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과 이익을 옹호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

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철저히 관철해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가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 것을 실체함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였다. 신문은 끝으로 지금 조선인민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9월 27일 이 나라의 압사라라지방방송도 우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파키스탄잡지 《퍼프 타임》 9월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8면에 걸쳐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

다》, 《자주의 강국》,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등 제목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잡지는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불멸의 사회주의로부루 전진되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잡지는 선군조선의 참모습과 우리 인민의 행복만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진들도 함께 편집하였다.

몽골 TV방송은 8월 2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김일성장관특별대담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영화를 반북방영하였다.

재부가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저는 그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존엄을 지키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선군의 한길만을 끝까지 가는 공화국을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것입니다.

공화국은 민족의 얼이 높워고 민족성이 차넘치는 배달민족의 참조국입니다. 사실 남조선에 침을 뱉고 떠난 저희들의 인생길이 북행길로 이어지지 못한 한것은 과거가 두터운데도 있었지만 남조선과 별차가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남조선이 양풍왜풍에 오염되었다면 공화국도 대국의 짚에 끼워 민족자존을 버리고있으리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공화국에 와보니 민족정신과 숙결이 그대로 맥박치고있었습니다. 평양대극장과 인민문화궁전, 유류관과 같은 조선식건축물들이 합각지붕을 떨치고 멋있게 솟아있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리 언어가 외래어와 혼탁되어 나중에는 제 땅에서마저 외국어를 모르고서는 일상대화가 어려울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고상한 우리 말로 정을 나누는 그 일상적인 모습들이 그때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희한하게 안겨왔습니다. 조선민족의 얼을 이제 더는 찾을수 없다고 체념해온 저희 부부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예가 바로 내 조국이었구나, 이 땅에서 《지상천국》과 같은 천도교의 리념이 꿈 아닌 현실로 꽃피고있다는 확신은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더 굳게 하였습니니다.

신화속의 주인공처럼 되어있던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비로소 실재한 인물로 증명되어 5천년민족사가 바로 세워지는 일대사변도 공화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공화국에서 단군릉이 발굴되고 웅장하게 꾸러졌다는 소식에 절한 남조선의 대종교 총신교인 안호상선생은 너무 감격해 《보안법》을 무시한 채 평양을 방문하여 단군릉에서 《어천제》를 지냈습니다. 그가 한때 남조선의 초대문교부 장관을 지내며 《학도호국론》을 만들어 《나치주의자》라는 락인까지 받았던 유명재한 보수정객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단군릉발굴이 얼마나 커다란 정신적충격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는것입니다. 그때 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반만년민족사를 바로 잡아주신 민족의 은인이시고 아버지이시다, 단군릉의 발굴로 복은 확고한 민족종독일의 중심으로 되었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한것도 결코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평양민속공원이 훌륭히 꾸러져 반만년민족사와 우수한 전통이 빛나고있으니 그래서 겨레의 마음은 더더욱 민족의 넋이 살아놀뛰는 평양으로 끌려오는것이라고 봅니다.

공화국은 온 겨레를 따뜻이 품어주고 품과 사랑을 다해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조국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조국의 품을 어머니의 품에 비기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사랑으로 만백성을 품어안는 조국, 진정 어머니의 자애깊은 모습으로 안겨오는 참다운 조국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온 겨레를 따뜻

이 안아주는 자애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마저 넓은 도량으로 품어안아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다심하고 사려깊은 정정이 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서 살 때 자주 보아온 반공포스터에는 북조선사람들의 얼굴이 빨강고 머리에 빨간 마귀처럼 그려져있었습니다. 공화국에 와서보니 전까지만 해도 모를지기 북에서도 남조선에 대해 저렇게 모독하고 헐뜯으리라고만 여겼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환호녘에야 비로소 깨달은것은 남조선이 인간의 정과 동포애가 강리리 얼어버린 동포데라던 공화국은 인간사랑, 민족사랑의 열과 빛이 따스히 흘러넘치는 겨레의 요람이었다는것입니다.

지난해 6월 공화국의 품에 다시 돌아온 한 녀성의 기자회견장면을 TV로 보면서 저는 수십년전 저희 부부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던 때가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울려왔습니다.

사실 죄로 따지면 일시적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의 길을 갔던 그 녀성보다 수십년간 반공일선에서 반역의 총대를 메고 동족을 겨누었던 남편이나 그 안해인 저의 죄가 더 중할것입니다. 그런데도 공화국에서는 과거를 불문해 불이고 저희 부부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더우기 양정결함으로 미국에서 이미 의학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저는 강력한 의료진의 관심속에 무상으로 엄청난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환생》하였습니다. 지옥행렬차에 한발씩 내걸고 생을 포기했던 제가 오일은 900개의 정점을 휘이 넘어 백살도 넘겨다보는 장수자가 되었으니 기쁨에 앞서 송구스러울뿐입니다.

얼뎠 버림받고 백년 벌을 준다고 해도 할 소리가 없는 몇몇이 못한 인생들에 인생의 빛바람을 아낌없이 뿌려주는 조국!

진정한 조국이란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대함에 있어 자그마한 편애와 차별도 없이 병신자식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주는 어머니, 오로지 어머니만이 줄수 있는 그런 후덕은 진정, 국적인 사랑으로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펴주고 겨레를 위해주는 한이러 넓고 따사로운 품이아말로 어머니라 불려 한것 아쉬움 없을 참다운 조국인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는 열두자식이 다 안겨도 비좁지 않다고 합니다. 인덕정리, 광복정리가 실시되는 우리 공화국이아말로 정경과 신앙, 출신과 과거경력이 각이한 온 겨레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만복을 누리갈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파란많은 저의 인생을 돌아볼수록, 내 조국의 위대함을 새겨어볼수록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빛내여가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젖어듭니다. 바로 그 품입니다. 민족의 얼을 지켜주고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는 우리 조국,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의지로 맥박치는 우리 조국은 겨레에게 참된 오늘의 삶과 휘황한 미래를 마련해주는 민족만대의 요람입니다. 온 민족이 운명을 맡길 참다운 조국입니다.

이것은 제 운명의 극적변화속에서 찾은 진리이고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다시금 붓을 들어 전하고싶은 심정의 고백입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혈육의 정으로 뿔뿔이 뿔수 없이 이어진 행복한 사회주의대가정은 바로 온 세상이 부러워마지 않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력사에는 자기가 소원한 특권으로 신의를 배운 정치가는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미심을 남기 위한 한갓 미사리구에 불과하였다.

만민을 품어안는 크나큰 도량과 뜨거운 인정을 천 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전설을 끊임없이 새겨가고계신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나 보다 가슴아파하고 괴와 살도 서적지 않는것이 어머니이며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다 기뻐하고 그것을 부엌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시고 크나큰 믿음으로 훌륭히 키워주시며 가슴속이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을 쓰신다. 사회와 집단앞에 용서받지 못

할 죄를 짓고 부모되자마자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해같은 도량과 믿음속에서 재생의 길을 걸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미미함을 위한 일에서는 친만금도 아끼지 않으신다. 창건거리살림집에 이사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어 소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유치원교

민의 편지에 빨간뎠 5개를 친히 그려주시기도 하시며 전신시찰의 길에서는 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된 아기를 품에 안으시고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부여주시었다. 온 나라에 전반기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몸소 소년단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시고 있다.

진정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은 태양의 빛과 열처럼 강하고 열렬하며 무한대하다. 그래서 공화국인

민들은 이그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못산다고 노래하고 있는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랑을 제일 중요안것으로 보고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든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히하게 합니다.》(골 3:14)라고 하였다.

부귀는 있어도 사랑이 없고 인정이 박하여 인간중요 사상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모진 사회적호름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치에 환상한다것을 환상의 《유로피아》로만 간주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사랑이 참된 정치에 구현되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과 열렬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인민의 세상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민사랑의 화신이시다. 하기에 공화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이를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르고있으며 그의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를 지지하고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중앙위원회 부원 차은정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 공화국창건 65돐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1일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섰으며 그 어떤 원수도 범접할수 없는 사회주의성새로 전변되었다고 격찬하였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주영일 우즈베끼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고대춘 부부장, 여러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영일 회장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맞이하며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들을 통하여 공화국의 위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비롯한 인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최전방의 섬초소도 찾으시고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계신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동포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변영을 위하여 더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본시기자

천 하 제 일 강 국 을 향 하 여

강국의 꿈과 현실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린다. 그 이름만 불러도 형언할 수 없는 격정으로 하여 심장이 뛰고 눈곱은 찢어질 듯 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 65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 아침해 빛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 반만년의 력사가 흘러왔건만 그 어느 갈래에 오늘과 같이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쪽 찌고 그토록 당당하고 멋있고 자랑스럽게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한껏 터쳐본 적이 있었는가.

한세기전만 하여도 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그칠새없는 동란으로 울밑의 봉선화마냥 슬프고 가엾기만 하던 우리 민족이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민족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자유롭고 존엄높은 강국에서 살기를 그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며 꿈으로나마 간주해왔다.

강국, 그것은 단순히 령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고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가 높은 단계에 이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나라가 바로 진정한 강국인 것이다.

오늘 인민의 세기적목망은 한낱 꿈이나 공상이 아니라

회한 현실로 되고있다.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올라선 공화국은 지금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다. 외세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가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강위력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밑천이 있어 공화국은 이미 경제강국의 경마루에 도달하고 있다. 외세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가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강위력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밑천이 있어 공화국은 이미 경제강국의 경마루에 도달하고 있다.

하루빨리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안고서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손길아래 공화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실 철의 의지를 안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과 과학기술

《북경제는 고립과 봉쇄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있다. 오�히려 (변영)의 대명사라고 자부하던 미국경제가 자본축적의 새 시장을 찾지 못한 나머지 딸라위기에 휘청대며 자멸과 공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진창에 빠져 급증하는 채무와 실업자, 빈곤층문제에 아우성치는 나라들의 대렬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자립으로 위력한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이나 제재에도 끄떡없이 오로지 전진 또 전진만을 외치고 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공화국이 제국주의세력의 끊임없는 압박과 동요에서 선진국들도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은 세계적인 사변이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단란시편을 이겨낸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제 세상사람들은 가까운 앞날에 세계의 상상봉우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권 지혜

최근년간 공화국은 나날이 불라보게 변모되고있다. 곳곳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창조와 건설의 동음 새차게 울리는 건설장마다에는 인민군대의 헌신적투쟁과 애국의 구슬땀이 스며들어있다.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만 놓고봐도 그렇다. 마식령스키장은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이다.

지난 6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내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애국의 호소가 온 세상을 뒤흔든 때로부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마식령지구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군인건설자들은 선군시대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산세험한 지형조건과 장마철의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공사과정에 많은 애로가 제기되었지만 군인건설자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호열과 봉사 및

판리건물들,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들을 비롯한 건물물포공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으며 모든 대상들에서 내외부미장작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스키장건설을 올해안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덩지 큰 공사대상만도 무려 수십개, 남달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길이 한번 가닿는 곳이면 몇년도 몇달로 앞당기는 기적같은 속도가 창조되군 한다. 최첨속도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단숨에 정신도 그 과정에 발휘되었다. 세련에 없는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마전과 룡라, 만경대를 비롯한 물놀이장들마다에서 더위를 모르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 평양의 곳곳에 꾸

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인민군대만이 발휘할 수 있는 투쟁모습이며 실천방식인 것이다.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지금도 인민군인들은 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평양에서는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각종 체육시설들로 이루어진 특색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과 현대적인 아동병원, 승마구락부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인민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화국은 산천도 거리고 날에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되고있다. 하기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강군의 위용을 펼쳐진 격의 돌격구를 열어나가고 있는 인민군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본사기자

◇ 해방전 단 한개의 대학도 없었지만 지금은 300여개의 대학과 500개의 전문학교가 운영되고있다.

◇ 해방전에는 문맹자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식인도 몇 사람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이 문맹자가 단 한명도 없는 나라, 300만명의 지식인대우를 가진 나라, 인재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 해방전에는 병원이 몇개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2,000여개의 병원과 6,000여개의 진료소가 있고 전방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 60여년전에는 국장, 영화관, 문화회관을 가진 나라, 김일성생애관작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21세기

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작들을 창조하는 예술의 나라로 되었다.

◇ 해방전 현대문명과 멀리 떨어진 공화국이 오늘은 첨단과학기술의 총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관측, 그 자료의 해석과 응용에 이르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진행하는 세계의 당당한 우주개발국 대렬에 들어섰다.

◇ 해방전에는 제 금메달이란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올림픽경기대회, 종합별 세계 및 아시아 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수많은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에 래전도열풍을 안아온 태권도모국으로, 체육의 대종화가 빛나게 실현된 나라로 이름떨치고있다.

본사기자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날리는 9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노라니 한련의 노래가 절로 떠오른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부르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다.

민들레 꽃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공화국의 남녀노소가 소중히 여기며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푸른 하늘이 오목배와 주렁지는 가을과 더불어 더 밝고 푸르게만 느껴진다.

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김일성광장에도 푸른 하늘이 펼쳐져있다.

가없이 푸른 창공에 령도자를 우리러 웨치는 일심일의 만세합성이 메아리치고 력사의 광풍이 흔들리지도,

수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인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창창히 펼쳐진 푸른 하늘아래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의 밝은 모습이 비친 푸른 하늘 바라보느라니 올해 5월 남조선의 《한겨레21》에 실린 한편의 기사가 떠오른다.

《하늘에 살아요, 새는 아니랍니다.》

새존의 권리, 로동의 권리를 위해 아아한 철탐우에서 항거의 날과 달을 보내는 6명의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을 저주하며 하늘에서 눈물의 절규를 분출하고있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에 《하늘주인》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동녕하늘이라는 뜻으로 불러주세요.》

미레가 없는 사회를 저주하며 제가 낳은 자식마저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모성의 웨침, 아이에게는 희망의 하늘을 안겨주고싶어 이름이라도 《동녕하늘》이라 불러달라고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일떠서는 《하늘도시》도 집값을 물수 없는 서민들에게 《한숨도시》로 불리우고 북침전쟁연습에 활개치는 군용기의 소음공해때문에 군용비행장주변의 주민들은 《저주의 하늘》이라 분노를 터친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실음과 원한을 한숨과 통탄으로 터뜨리는 화풀이대상이다.

푸른 하늘, 태고적부터 가없이 펼쳐져있었고 북에서도, 남에서도 볼 수 있는 창

도 칩힐할수도, 어지럽힐수도 없었다.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공화국인민들은 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의 위력으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공화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렀고 세계에 어지러운 광풍이 몰아쳐도 인민들은 언제나 그늘 한점 없는 푸른 하늘아래서 행복을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를 총대로 우렁하는 선군은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인민의 앞길에 맑고 푸른 하늘만 펼쳐주고 있다.

기둥이 든든하면 지붕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력사의 시련속에서 버려낸 평화의 보검인 선군이 있어 공화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 것이다.

리성심

인민을 위한 정치가 있어 공화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렀고 세계에 어지러운 광풍이 몰아쳐도 인민들은 언제나 그늘 한점 없는 푸른 하늘아래서 행복을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를 총대로 우렁하는 선군은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인민의 앞길에 맑고 푸른 하늘만 펼쳐주고 있다.

기둥이 든든하면 지붕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력사의 시련속에서 버려낸 평화의 보검인 선군이 있어 공화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 것이다.

리성심



현대적인 공작기계생산기지로 전변된 최첨단기계종합공장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건설된 장전거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건설된 최첨2호발전소



날바다위에 장쾌하게 일떠선 대개도간석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이채로운 풍경

공화국은 창건후 오늘까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오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것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기때문이다.

공화국의 무료의무교육제도는 바로 국가의 인민적사랑의 집적적발현으로 된다. 인민적사랑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나가는 정책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요한 인민적정책들에는 무료의무교육제도, 전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적무상치료제도, 어린이교육 교양제도,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의 보장,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공화국의 무료의무교육제도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의무교육을 받고있다.

공화국의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역시 가장 우월한 인민적보건의책이다.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우월한 보건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진찰, 실험검사, 치료와 수술, 입원을 하거나 약을 쓰는데 돈 한푼 들이지 않고있다.

최근에는 전국적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제와 먼거리수술지원체제가 수립되어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과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다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부담

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을 지어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주고있다. 이것은 나라에서 베푸는 인민적정책이 얼마나 좋고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타아소와 유치원의 운영,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등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이처럼 어렵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국

가의 인민적정책은 한시도 중단된 일이 없었다.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인민적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은 그들이 받는 생활비를 훨씬 넘는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도서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민수대거리, 창전거리 등 현대적인 교육시설들과 병원들, 훌륭한 살림집들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높이 울리고있는 공화국에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나가는것은 인민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행복의 미래가 온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대중의 리상과 문명이 날로 꽃피어나는것은 오늘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유서깊은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개신청년공원 유희장을 비롯하여 플라인민유원지, 서해의 남포, 동해의 송도원과 마천 등 공화국의 거대디를 가보아도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위대한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웃어도 누구나 다같이 웃고 문명을 누려도 온 나라 인민이 함께 향유해가는 이처럼 아름답고 공지로

우며 행복한 생활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인민들이 기쁨을 누리는 어머니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무료의

무교육제의 혜택을 받아안으며 국가가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고풍한 시책속에서, 명당 자리들에 일떠선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위한 공원과 유원지, 정휴양소, 궁전과 야영소 등에서 마음껏 복을 누려왔다.

레일도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고난의 천리길을 웃으며 헤쳐온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엄로운 삶을 안겨 주려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사회주의선경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들우에도 꽃을 피우는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안아온 결정체들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풀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 주는 그 무한대의 사랑이 있기에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조국의 품에 더 깊이 안겨들며 그 은혜로움을 배부르게는 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금 《마식령수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창조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시설들이 건설되고 과학기술중시기공, 체육경기 시설이 세워지고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 공화국의 현실이다.

문명과 번영으로 확신있게 나아가는 장엄한 투쟁속에 이 땅우에는 멀지 않아 사회주의문명국이 일떠서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리혜영



최첨단과학기술을 탐구하고있는 대학생들



태어난 첫날부터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저 하늘 어디가에 자기들이 그러는 리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며 육체는 죽어 땅에 묻혀도 넋만은 하늘에 오르기를 고대하였다.

그 소원을 담은것이 하늘 나라, 즉 《천국》과 《천당》이다.

인류의 세계적인 그 꿈을 《지상천국》의 현실로 꽃피우는 나라가 있다.

이민위천의 뜻대로 인민을 하도록 여기는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세상, 한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가정의 기쁨이 온 나라의 기쁨으로 되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영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프랑스로학생들은 올해 송도원국제야영소에서 느낀 감명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전설같은 이 나라의 모든것에 대해, 특히는 세계에 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성격과 문화, 풍습을 친진관한 아사들과의 야영을 통해 자세히 알고싶은 마음》이다.

어느 한 중국관광객의 공화국에 대한 평은 그대로 명창이다. 《지육이자 천당》 즉 부자들에게는 지육이겠지만 평민들에게는 천당이란 것이었다.

세계를 휩쓰는 99%와 1%의

인민이 주인된 세상,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있고 모든 정책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우선으로 실시되고있는 인민의 력원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지금 더욱 부강하고 번영할 천하제일강국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북의 위상은 높아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 국제사회의 철학적근을 메꿀수 있는 토대를 소유하고있다는 사실, 그리고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본거지로 부상하고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공화국은 우주를 정복한 기세로 지식경제강국,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을 세우기 위해 《마식령수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며 자기의 신념,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일떠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먼 앞날의 전경도가 아닙니다.

본사기자 김정력



흥성이는 로라스케트장

인민의 력원

에서 송도원에 왔다. ... 가식과 허영, 불행과 비판을 모르는 조선아이들의 자신만만하고 밝고 정직한 모습에서 조선의 참모습을 볼수 있었다.》

《실지 와보니 조선이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선사람들은 누구나없이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문명한 사람들이다.》

빈부대립이 없는 인간관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생활의 갈피갈피에 구현한 사회, 자기의 근면한 로동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나라, 이런 사회, 이런 인민을 세계가 동경하고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세세년던 굵은 등에 무거운 가난과 억압만을 지고있을 건설해가고있다. 지난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한 재미언론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방북에서 배운것은 북녘동포들의 자수성성현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는 사실, 이제는 그 어떤 강대국도 북을 침략할수 없다는

체육열풍이 안아온 빛나는 성과

아도 손색이 없게 전변시킬수 있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이시였으며 평양국제체육과학과 같은 현대적인 선수후비양성기지도 일떠세워진 경에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람은 주체체육의 비약적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었고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북돋아주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온 나라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체육열풍이 더 세차게 일어나고 체육에 대한 사회관심이 부쩍 높아지고있으며 빛나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체육에서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본래를 온 세상에 떨치고야말겠다는 불타는 민족적자존심, 세계패권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룩하게 노력한다면 누구나 세계적인 체육명수가 될수 있다는 야심만만한 자신심, 한번 쓰러지면 열반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충만된 체육인들의 정신력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훈련성과와 경기실적들을 낳고있다.

2012년부터 올해의 뜻깊은 전승 60돐까지의 기간에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축구, 마라톤, 탁구, 럭기, 유술, 레슬링, 권투, 짧은주루속도빙상

등 여러 종목들에서 230여개의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이 나날에 올림픽선수권과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보유자들도 수많은 배출되었다.

특히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전승절까지만 하여도 축구, 탁구, 마라톤, 유술, 럭기, 레슬링, 권투, 교예체조 등 10여개 종목들에서 5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근 110개의 메달들을 쟁취하여 시대를 격동시키고 있다.

지난 5월에 프랑스에서 진행된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 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일본, 남조선 등 맞대드는 모든 팀들을 물리치고 단연 우승함으로써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다.

얼마전에도 제18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은 우승컵 4개와 금메달 21개를 비롯한 많은 메달을 쟁취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1등을 하였으며 공화국의 리향미, 리광속수들은 제3차 대만국제련투경기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가의 체육중시정책이 있고 전사회적인 체육열풍이 있으며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미더운 체육인들이 있기에 공화국은 더 높은 경기성파를 이룩하며 가까운 앞날에 체육강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올라 올것이다.

김수영



인민의 행복 끝없이 물결치는 대동강의 밤

를라인민유원지에 있는 전자오락판은 요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훌륭한 물놀이장과 유희장, 풍덩어판이 있는 를라인민유원지에 전자오락판까지 세워지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한다.

를라인민유원지의 1구역과 2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전자오락판들은 사냥경기, 자전거경주, 오토바이경주, 화물자동차경주, 산악자동차경주, 땅크대전, 판스키경주, 직승기내리사격, 윈시림속에서의 총쏘기, 보트경주, 경

아슬한 싸움을 하는 격술가가 되기도 한다. 아작은 겨울이 아니지만 판스키경주오락을 하는 사람들은 흰눈덮인 스키장의 주로를 지켜내리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기도 하고 보트경주오락을 하는 사람들은 물결기를 세차게 일으키며 신바람나게 내달리는것만 같은 패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전자오락판을 찾았다는 리광속녀성은 자기도 한번 해보고싶은 욕망에 오토바이경주오락을 했는데 참 재미있다고. 짙은 눈이 들어 립속 3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정혁 전자오락관 관리공의 말에 의하면 전자오락판들은 낮시운뿐 아니라 밤늦게까지도 운영되고있기때문에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시간이후에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한다.

전자오락판과 더불어 를라도에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날이 갈수록 풍만해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모습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맞이하는 지금 이 땅에는 공화국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체육은 국가발전과 인민의 정신력발달에서 그 무엇으로 써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제체육경기무대는 체육인들의 기술과 전술, 육체능력의 대결장일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국력과 정신력이 겨루어지는 심각한 장소이기도 하다.

하기에 경에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를 통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치도록 이끌어 주시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으로 나라의 체육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아 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전사회적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체육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라안에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도시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축구경기도 보여주셨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체육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기념사직도 적으신분이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체육인들에게 수많은 경기 및 훈련용기재, 료전기재 등을 보내주시고 평양체육관과 청춘거리 체육촌, 양각도축구경기장을 그 어디에 내놓

